

한국 건축에서 정인국이 갖는 가치

정인국 교수의 건축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작가, 작품론으로 접근하는 것과 다른 특별한 태도가 필요하다.

우선 정인국 교수를 이해하는데에는 그의 실제 작업과 그 배경을 이루는 시대적 의사를 종속적으로 결부하여 볼 이유가 있다. 사실상 그는 대학교수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양의 프로젝트를 구현하였고,

동시에 그가 그 시대에 전달하고자 하였던 건축적 사유의 세계도 풍부하다.

이러한 눈술 활동과 작품이라는 이중의 작업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적 속박이 되기 쉽기도 하다. 한 건축가에게 있어 이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읽는 것이 어려운 것은, 보통 확연한 자기 개념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적 성과가 미진할 경우, 또는 뛰어난 건축적 표현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축적 개념이 쉽게 설명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논리와 작업이라는 이중의 관점 아래 정인국 교수의 건축 세계를 읽는 것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동시

대의 건축적 보편성을 넓게 이해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정인국 교수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세기 초의 한국 건축이 겪는 변이(變移)의 노력과 함께 어떤 한계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항시 이 보편인 들이 쉽게 위무(慰撫)받는 상황과 변명을 앞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대인으로서 사고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 그가 동시대인들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단락으로서 시대의 전이성이다.

첫째, 해방 후 우리 건축의 보편적 명제가 된 모더니즘은 어떻게 체화(體化)되는가.

둘째, 세계주의로서 모더니즘은 우리와 같은 제3세계의 위치에서 어떻게 극복되는가.

셋째, 건축의 지역적 특질로서 한국성은 어떻게 가능한가의 모색이다.

그는 한국의 근대기에서 국토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 때문에 성형된 월남(越南) 건축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대부분의 인텔리겐차와 같이 일본에서 전문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혼돈과 빈곤의 시대 상황을 극복해야 하였던 제2세대 건축가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그의 프로파일은 동시대인들의 보편적인 실루엣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에게는 동조하기 어려운 앞선 사고 때문에 낙천적인 편모(片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면에는 항시 고독한 그늘이 투영되어 있다.

실제로 건축의 작가 활동은 1954년 홍익대학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며, 이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폐허화된 서울이 수복되고 난 즈음이다.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건축의 사회와 실무와 교육이라는 세가지 현장에서 적극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와 같은 물질적 빈곤과 정신적 빈한(貧寒)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는 건축학계와 작가협회와 같은 건축사회의 구축, 일제가 남기고 간 건축 교육의 재편 그리고 생존 수단을 포함하는 건축 창작 등의 여러 역할의 기대에 자신을 쫓겨야 하였다.

그의 실질적인 활동기라고 할 수 있는 5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의

한국의 건축가—정인국(1)

Korean Architect, Cheong In-Kuk
모더니즘의 시대인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Park Kil-Ryong

본지는 한국건축사속에서 선각자로 활동했던 건축가를 재조명, 그들의 작품세계를 분석,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 이희태, 김정수, 김수근에 이어 그 네번째로 정인국의 작품세계를 5회에 걸쳐 알아본다.

1. 모더니즘의 시대인

정인국이 갖는 한국 건축에서의 가치, 이북에서의 소년기, 일본 유학기, 너른 합리적 사고와 깊은 정서의 세계

2. 학자 건축가 정인국

홍익대학교에서 건축 교육, 신건축문화연구소, 모더니즘의 시기, 강평구·엄덕문·김중업과의 조우, 건축가협회장

3. 정인국의 지적 중흥기

한국적 모더니즘의 변이, 제3세대, 제3세계 건축에 주목함, 강의실에서 만남, 서양건축사·근대건축론·현대건축론에서의 시대관

4. 한국성의 모색

민족박물관의 교훈, 문화재 위원, 한국 건축 원형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목조건축양식론」

5. 정인국 건축의 궁극성

한국건축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UIA 총회, 정인국이 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 것, 병환

기간은 약 20년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이에 그는 세 번의 변화를 사고 하고 실천한다.

이러한 지속적으로 자신을 전이(轉移)시켜 가는 태도는 동시대 대부분의 작가가 모더니즘의 아류에 안주하거나 불명확한 건축관 위에서 부유하던 태도와는 변별되는 가치이다.

우리는 한 작가가 지속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개별적 가치관에서 어떤 항상성(恒常性)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자기 진화(進化)의 메카니즘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항상성이란 곧 누룩한 권태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대적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미래를 널리 예견하는 시대정신을 회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대 상황에 충실한 예술 태도보다도 시대를 리드하는 실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천수(天壽)를 다하지 못하고 1975년 별리(別離)하였다. 그의 나이 환갑을 못 채운 59세이며, 제3시대기로서 한국성의 실험이 한창이던 때이었다. 급환으로 후대를 위한 건축적 유언을 채 준비할 겨를도 없이 돌아가시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마지막 시기는 미완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한국 근대주의의 맹아(萌芽)와 개척(開拓)의 시대, 그리고 한국건축의 본질이, 한 학자이며 동시에 실천가라는 이중의 영역에서,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한 예술인이 마련하는 시대정신이 우리의 빈곤한 인식 상황에서 얼마나 귀중한 가치로 자리하는가에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이 정인국(鄭寅國)론의 방법을 주로 연대기적인 순서로 하되, 그의 저술을 통한 시대정신과 작품을 통한 실천이 병치적으로 펼쳐 보이는 구도로 기술하고자 한다.

소년기와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 시절/ 너른 합리적 사고와 깊은 정서의 세계

정인국은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 문창리에서 부친 정재유씨와 모친 이재성씨 사이에서 1916년에 출생하였다.

1930년대까지 황해도는 6개 군이던 것이 17개 군으로 확대되나, 재령군은 그 중에서 비교적 군세가 가장 약하였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 고장은 일찍이 선교사가 많이 진출하여 있고, 경성과 동경에 많은 유학생을 배출

하고 있던 개화된 분위기에 있었다.농경 경제가 발달한 이 고향에서 여유있는 지주의 4남 1녀중 3남으로 태어난 그는 비교적 자유로운 가족 생활에서 소년기를 보냈다.

이와 같은 넉넉한 환경에서 총명한 소년 정인국은 재령공립보통학교에 들어가 소년기를 재령에서 보냈다.

12세가 되어 서울로 올라와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며 엘리트 교육의 길로 들어선다. 월반을 할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1934년 봄에 중앙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35년에 도일하여 와세다대학 제1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년만에 이 과정을 마친다.

곧 이어 1938년 와세다 대학 이공학부 건축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건축 수학에 들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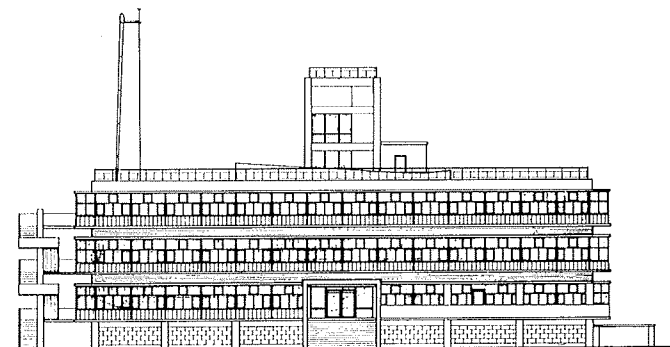
그가 건축 전공에 뜻을 두게 된 것은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서 어떤 외국인이 초가집을 보고서는 조선에는 이렇게 목장이 많으냐는 질문을 받고 조선의 건축을 일으키겠다는 뜻에 동기가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가 전공의 선택을 이루는 것은 수학에서 특히 높은 재능을 보이고 음악적 정서와 뛰어난 그림 소질에 스스로 주목했었을 것이다.

그는 청년 시절 음악의 세계에 젖기도 하는데, 주로 현악기를 특히 첼로를 상당한 수준으로 연주하였다. 그후 친구들과 교향악단을 구성하여 황해도에서 연주 활동을 한다. 그의 음악 멤버 중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를 지내는 배석빈 교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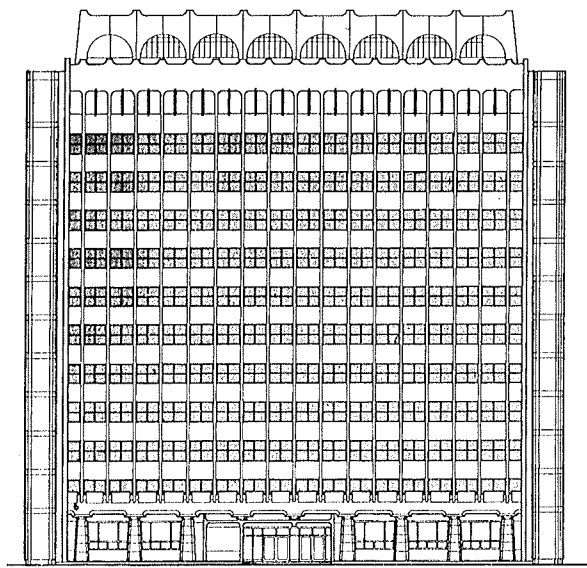
1942년 9월에는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다. 해방되기까지 3년의 시간이 있다.

우리는 일제 치하의 당시 한국의 1세대 건축가는 크게 두 가지 수학경험을 통해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경성고등학교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경성에서의 인맥이다. 그들은 박길룡을 필두로 하여 박동진 장연채, 김순하, 유상하 유원준, 이천승, 김재철, 김희춘 등의 인맥이 그러하다.

두번째 계류는 일본 유학과로서 와세다 대학, 동경공대 일본대 등에서 수학하였던 사람들이다. 그 즈음까지 일본에서는 동경공대의 이룡재, 김종량, 와세다 대학의



국립 중앙 관상대 정면도



서울시 교육위원회 정면도

김윤기, 이윤순, 일본대의 권경열, 백진기, 김충국 등이 배출되고 있었다. 와세다에서 선병택, 엄덕문, 강명구 등과 조우하는 것도 이때의 일인데, 후에 그들은 정인국 교수가 한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게 된다.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인국 교수는 1942년 안재순 여사와 결혼한다. 결혼식은 재령에서 전통 혼례와 사리원에서 신식 결혼식을 갖는데, 위의 언급된 교향악단의 친우들이 축가를 연주한다. 두 분의 만남은 당시로서는 주변 친우의 전략이 개입되나, 연애의 결혼이기가 쉽다. 부인 안여사는 정교수가 들러리를 섰던 친구 결혼식에서 만난 신부를 들러리였기 때문이다.

와세다 대학의 졸업과 함께 그해 11월에 도쿄 소재의 일산(日産)토건주식회사 설계부에 입사하여 잠시 일본에서 신혼 생활을 가지나, 부인은 출산을 위해 곧 고향으로 돌아온다.

도쿄에서 직장 생활은 1년 정도이며, 1943년에는 중국의 관동주(關東州)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나, 그 해 곧 만주 안동현(安東縣)으로 발령을 받아 해방 즈음까지 지낸다. 그의 만주에서 경력은 당시 대부분의 전문직인들이 그러하였듯이, 학병(學兵)을 면제받는 산업체 근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 되는 1945년 2월에는 일산토목주식회사(日産土木株式會社)를 퇴사하고 귀국한다.

광복과 귀국 후 새로운 입지에서/학자로서 건축가의 시작

한국한 정인국 교수는 1946년 황해도 재령공업전문학교 부교장으로 부임한다. 약 2년 후인 1948년에는 평양

공업대학 건축학부 교수로 부임하며 평양에서의 마지막 기간을 보낸다.

원래 평양의 사립「대동공업전문학교」는 일제 말기인 1944년에 관립으로 개편되며「평양공업전문학교」가 되었으나 이 때 건축과는 폐과되었다. 그 후 이 학교는 1946년 김일성대학의 학부로 흡수 통합되었다가 1948년에는 공학부가「평양공과대학」으로 독립되었다. 건축과가 설치되면서 당시 유일한 건축과가 있는 대학이었는데, 이 대학이 현재의「김책공과대학」이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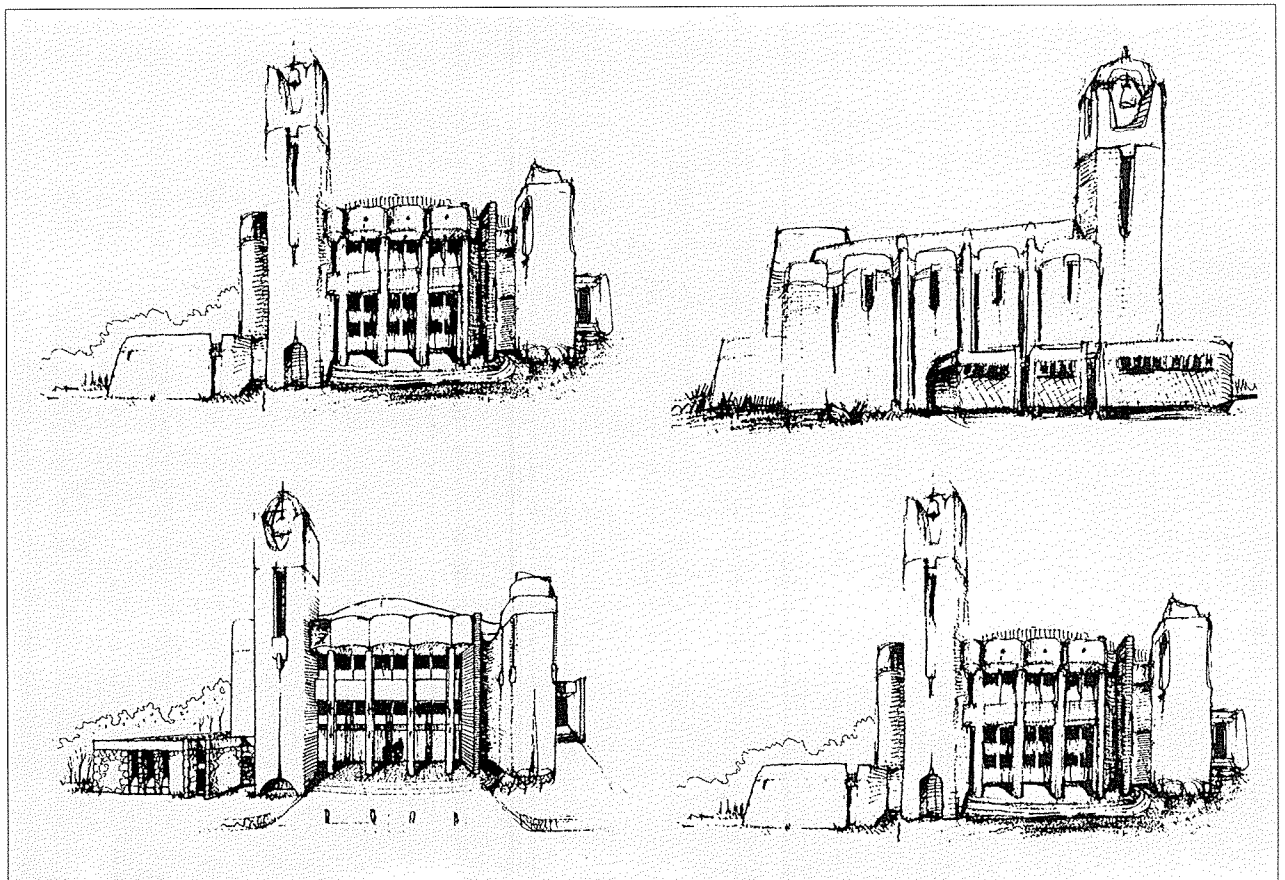
정인국 교수는 1947년 9월부터 1950년 12월 월남할 때까지 이 학교 교수 겸 건축학부장이었다.

정인국 교수가 1.4후퇴와 함께 월남하는 것은, 지주 계급이었던 가계(家系)가 그러하거나, 점차 생활이 위협받는 당시의 공산 치하의 정정(政情)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이해된다.

1950년에 월남하여, 동국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계를 해결하나 동란의 상황에서 생활의 근거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이 사이에 서울에 건축과에 재직하며 새로이 건축학계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1951년 3월에는 위의 회사를 퇴사하고, 그해 9월에 대한중석회사 상동 광업소 공무과에 입사하며 근거지를 부산에서 강원도 상동으로 옮겨야 하였다. 이 시기 동안의 가족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된다. 부인의 건강이 염려될 상황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한적한 환경에서 가정에 충실할 수 있었던 시기로 보인다. 그는 1954년 홍익대학에 교수직을 가질 때까지 약 3년간 이 직장에 재직했다.

당시의 건축가 인맥의 환경에서 이북 출신이며, 일본 유학파인 정교수가 서울에 안착하기 까지에는 곤혹이



정동교회 스케치

따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데올로기의 상흔(傷痕)을 가지고, 학맥과 지맥의 이유에서 당시 남한의 건축계의 벽은 그의 일생 중 가장 어려운 시기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의 정교수가 월남하여 안착하는 데에는 와세다 대학의 선배인 김윤기 장관의 도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들을 극복하며, 서울의 건축사회에서 자리를 분명히 한다. 그가 홍익대학 교수에 임하는 것이 1954년이고, 같은 해 신건축문화연구소를 설립하며, 대한미술협회 위원이 되는 것은 1955년인데, 모두 서울에 정착한지 4년만의 일이다.

공백의 상황/1950년대의 한국 건축

이즈음 그가 한국의 건축적 상황에 시선을 들게 되며 목도하는 건축가의 양태, 건축 활동, 건축에 대한 인식은 무위, 빈곤, 척박의 것이었다.

당처한 해방 후 한국의 상황은 일제를 거치는 동안 세계건축으로부터 소외된 환경에 있게 되고, 이를 책임질 당사자는 "그러한 중에서도 한국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잠잠한 가운데 작품 활동을 꾸준히 계속한 작가와 현실적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인 사립학교 재단에서 온건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와 관청에서 건축 행정 면의 경력을 쌓아 올리는 건축 실무자들의 3개 그룹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는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건축가라는 직분이 사회적으로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있는 것은 다만 자유직업으로서의 건축가가 산재하고 있었을 뿐이다."

건축 활동으로서도 해방 후 48년 정부 수립까지는 거의 모든 건축 활동이 동결되고, 그나마 군정(軍政)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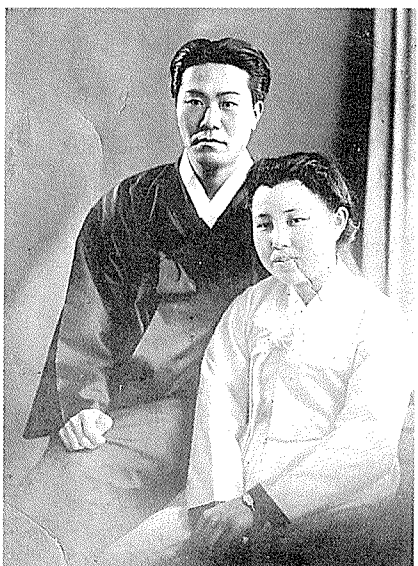
황에서 "의욕은 있으나 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신음하던 시기이다."

그 후 10년간이나 정치적 혼란과 한국 동란의 공백을 겪고, 1955년부터 1961년까지 뒤늦게 개화된 국제주의 양식의 무비판한 도입을 보게 된다. 많은 식자들의 탄식과 같이 정인국 교수가 함께 지켜보게 되는 시대성은 "이 시기에 안이하게 기능주의적 합리주의를 기본으로 처리하여 아무 모순이나 안타까움을 오늘과 같이 혼란한 상태에 놓이게 한 책임이 성숙기의 몇 명의 지도적 작가들이 많은 것을 망각한 채 자기 도취에 빠진 탓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책임 있는 입장에서 한국 건축계를 이끌어가야 할 중견 건축가들이 무위도식한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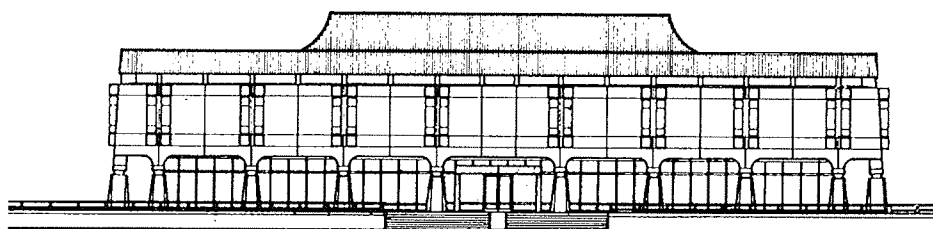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건축의 예술적 가치를 대중화하고,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그 시대 건축가들의 고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건축사회의 구축을 위한 역할에서 이천승, 김희춘, 엄덕물, 강명구, 김정수 등 여러 건축가들과 함께 정인국은 건축의 지표를 분명히 하여 주었다. 식민지 교육의 흔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어떻게 숙정되어야 하는가, 그의 교육철학은 오늘에도 시사받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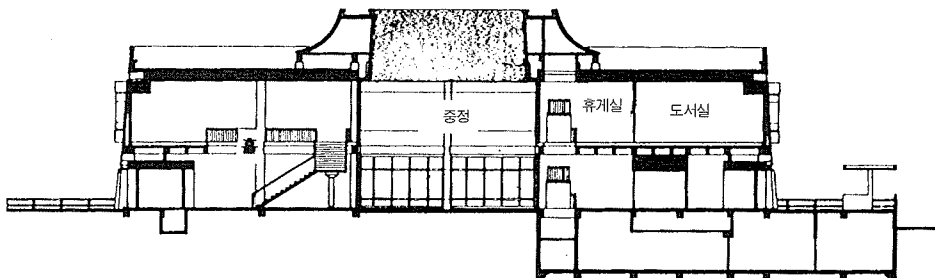
다음의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1954년은 정인국의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연대가 된다. 이제 정인국의 역할을 3가지 범주에서 선명하여지는데, 건축가협회를 통한 건축 문화의 사회화 활동, 신건축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 작업 그리고 홍익대학 건축과의 교수직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정인국선생의 결혼식때의 모습



영남대학교 박물관 정면도



영남대학교 박물관 단면도